

KDC 제6판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187)의 용어 변경 및 주기사항 보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Terms and Supplementing notes of the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김 영 주 (Young-ju Kim)*
권 선 영 (Sun-Young Kwon)**

초 록

이 연구는 KDC 제6판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용어와 주기사항의 보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KDC와 DDC 등 주요 분류의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 분류체계를 상호 비교하였으며,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KDC 변천과정과 분류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기의 미흡, 용어의 부적절함 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분류의 혼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187의 각 하위 항목에 주기의 추가, 187.2, 187.3, 187.4, 187.5에 있어서 용어 변경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supplement terms and notes in the field of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in the KDC 6th edition. In order to this study,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DC and DDC analyzed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change process of classification items, classified data in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Based on this, the analysi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fiel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ck of notes and inadequacy of terms caused confusion in classification,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 of adding notes of sub-items, changing term of 187.2, 187.3, 187.4, 187.5.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초심리학, KDC, D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Parapsychology, KDC, DDC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보융합연구소 연구원(dudwn7565@naver.com)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sykw@hnu.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5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6월 1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161-181,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2.16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분류는 학문분류로서 학문 자체의 분류 및 사물이나 개념 상호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수단이다(이은경 2008, 1). 학문분류는 각 학문영역의 체계와 분야를 나타낸 것으로 학문 활동의 결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여지숙, 이주만, 오동근 2008, 250; 이은경 2008, 1). 이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문헌분류는 일체의 정보자료를 학문영역의 주제와 형식에 따라서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여지숙, 이주만, 오동근 2008, 250; 이은경 2008, 1). 즉, 문헌분류는 학문활동의 결과에 따라 정보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며, 학문분류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고 개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여지숙, 이주만, 오동근 2008, 250).

문헌분류는 학문분류의 체계를 반영하면서 이용자의 편리성 또한 고려를 해야 한다(여지숙, 이주만, 오동근 2008, 250).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자료를 분류할 때 문헌분류를 근간으로 기호화하고 자료를 찾는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282). 하지만 문헌분류가 유지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요 분류표들이 개정될 때 각 학문분야에 새롭게 도입되고 파생 및 세분된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학문분류가 반영이 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282).

2013년에 발행된 KDC 제6판은 새로운 학문 발전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시켜 새로운 항목을 배정하고, 적절하지 못한 용어는 시대에 맞는

용어로 대체하고, 각종 조기성 기호도 일부 조정하여 개정되었다(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282). 이는 개정작업 시, 학문분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분류항목을 개정한 것이다.

KDC 개정판이 발행될 때마다 학계에서는 학문 및 주제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 다음 개정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수정 지침을 제시해 왔다(김수정 2013, 54). 하지만 이러한 발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KDC의 187(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에서도 볼 수 있다. KDC에서 187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주제에 해당된다. 해당분야를 살펴보면 KDC 초판이 발행된 이후 187.41(유령, 요괴, 환영), 187.42(무당, 강신술), 187.5(단)이 추가되었을 뿐 용어나 전개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사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나 다른 분류기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주기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KDC 제6판의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를 분석하여 학문적인 발달 상황을 반영한 전개를 적용하고자 하며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이 연구는 KDC 제6판에서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적절한 전개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문헌을 통해 초심리학의 학문적인 영역과 체계,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특징을 살핀다.

둘째, KDC 제6판과 DDC 제23판, NDC 신정 10판, LCC:G, UDC 표준판을 비교·분석하여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분류체계를 분석한다.

셋째, KDC 초판부터 제6판까지의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변천과정을 분석한다.

넷째, 국가자료종합목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에 분류된 자료들을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분류항목 전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1.3 선행연구

KDC 제6판의 분류개선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주로 학문의 특성 및 연구영역, 주요 문헌분류표들의 분석을 통해 각 학문 영역과 분류된 자료의 수를 분석하고 자료의 집중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각 개선안 제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송이, 정연경(2014)은 KDC 제6판 건축학 분야에 있어서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5판 건축학 분야의 비교를 통해 변화를 살펴보고 개정판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통해 자료수를 파악하여 분류할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류기호의 확장과 축소를 제안하였다.

김수정(2013)은 KDC 제6판 디자인학 분야

에 있어서 개선안을 제시했다. 디자인학 분야의 연구분류체계들과 주요 분류표들을 비교하고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분석하여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의 수와 학문의 세분화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현(2014)은 KDC 제6판의 관광학 분야에 있어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관광학 분야의 연구영역과 주요 분류표들의 분석을 통해 학문영역의 구분을 파악하였고,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통해 관광학 분야에 있어서 자료분류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학문영역과 자료의 적절한 분산을 위해 분류체계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김정현(2017)은 KDC 제6판의 사회복지학 분야에 있어서 학문적 특성과 문헌분류법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학의 학문영역을 파악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회복지학 자료 분석을 통해 빈도수가 높은 주제어 분석을 하여 분류의 세분을 제안하였다.

이희진, 김정현(2013)의 KDC 제6판의 체육학 분야의 연구영역을 통해 학문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분류표들의 분석을 통해 KDC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문헌분류에 있어서 특징을 파악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서지를 통해 자료분류의 집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분류체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정옥경, 이장익, 최정희(2013)는 KDC 제6판의 약학 분야에 있어서 주요 분류표들과 KDC 약학 분야의 변천과정의 분석을 통해 학문의 최신성 반영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를 종합해보면, '187(심령연구, 비학 및 초심리학)'에 대한 KDC의 분류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는 각 하위항목에 분류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류의 혼란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찾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2.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의 학문적 영역과 특성

KDC의 187은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로써 먼저 해당 분야의 학문적 영역과 주제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영역

심령과학은 자연발생적인 경험, 또는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인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현상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장영창 1993, 337; 유명복 2013, 349). 즉, 자연법칙이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야를 말한다. 초심리학은 크게 사람의 오감을 사용하지 않고 논리적 추론 없이 정보를 얻는 텔레파시나 투시 등이 해당하는 초감각 지각, 마음이 몸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초월하여 영향을 주는 염력, 심령술과 임사 체험,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명복 2013, 349).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는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심령연구협회(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유명복 2013, 348). 심령연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이유는 영적인 의사전달이 실제적인 것임을 인정하여 발전한 심령주의운동의 등장 때문이었다(유명복 2013, 348).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의 듀크대학에 설치된 초심리학 연구실의 Joseph Rhine 박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초능력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박희준 1999, 49). 당시 초심리학은 초심리현상의 객관적인 증거를 축적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후생존문제보다는 초감각지각과 염력 등 초능력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박희준 1999, 49; 유명복 2013, 348). 이후 1960년경부터는 초심리학 현상의 사후 세계에 대한 관찰적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유명복 2013, 348). 이 시기에는 임사체험, 유체이탈, 퇴행최면의 경험자와 환생 주장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생존, 환생의 문제가 초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박희준 1999, 50). 198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저명한 과학 학술지에 초심리학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수록되기 시작했고 초월적 현상을 가리키는 사이(Psi)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유명복 2013, 349).

2.2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학문적 특성

초자연적인 현상은 흔히 초감각 지각, 염력,

심령술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유명복 2013, 350).

초심리학을 구성하는 첫 번째 영역인 초감각 지각은 정신이 감각을 통해서 증재하지 않고 논리적 추론 없이 정보는 얻는 것으로, 지역, 시간, 지능, 연령 혹은 교육과 같은 요소와는 독립적이다. 초심리학자들은 보통 지각이 대상으로부터 지각자에게 물리적 자극이 도달하여 감각 기관을 흥분시키고 그 흥분이 중추에 전해져서 감각을 일으키지만 초감각 지각은 물리적 매개 없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통로와 의사소통의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적인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유명복 2013, 350).

두 번째, 염력은 생물 또는 무생물의 물리적 대상에 관한 마음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물체를 움직이거나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래 염력은 죽은 사람들의 유령이나 천사, 귀신 등 초자연적인 힘이 원인이 되어 물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후에는 인간도 이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유명복 2013, 353).

세 번째, 심령술은 사후의 세계와 미래에 대해 알기 위해 죽은 사람의 영과 대화하는 것으로, 이 세계에서 생명은 육체에 의해 의존해서 활동하지만 육체를 초월해서도 존재 가능하며 따라서 육체적 삶을 마감하더라도 또 다른 생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임상체험이란 짧은 시간동안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들의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이 어떻게 되며 의식은 여전히 생존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단

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상으로 여겨진다(유명복 2013, 362).

이 분야는 취급되고 있는 인간의 경험이 아주 불가사의해서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연구방법이 완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방법에 관해서 엄중한 실험관리를 행해야 된다(장영창 1993, 360).

3.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분석

3.1 KDC 제6판과 타 분류법과의 비교분석

KDC 187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요 분류표인 DDC 제23판, NDC 신정 10판, LCC:G, UDC 표준판을 상호 비교하였다(〈표 1〉 참조).

KDC 제6판에서는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가 180 심리학의 하위 항목에 분류되어 있지만 DDC 제23판은 심리학과 분류항목을 따로 설정했다. 즉, DDC 제23판은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를 130에 심리학은 150에 분류하였다.

DDC 제23판은 130이 KDC의 187과 188에 대응된다. 133.1의 유령은 KDC 제6판의 187.41에, 133.3의 점술은 KDC 제6판의 187.7에, 133.4의 악마학과 요술은 KDC 제6판의 187.4에, 133.5의 점성법(술)은 KDC 제6판의 188.8에, 133.6의 수상은 KDC 제6판의 188.2에, 133.9의 강신론은 KDC 제6판의 187.42에, 137의 예언

〈표 1〉 주요 분류표의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 비교

KDC		NDC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147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1. 마술, 주술		.1 주술, 환술	
2. 정신감응술		2. 정신감응술	
3.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		3. 악령, 마귀, 영매술	
4. 귀신론		4. 예지, 예언, 투시, 투여	
.41 유령, 요괴, 환영		5. 심령사진, 영사	
.42 무당, 강신술		6. 요괴, 유령	
.5 단		7. 심령술	
		8. 영능자, 초능력자	
DDC	LCC	UDC	
130 초심리학 및 신비학	BF1001-1389 초심리학	159.961 초심리학	
131 행복,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초심리학 및 초자연적 방법	BF1001-1045 심령연구 BF1048-1108 환각, 잠, 꿈, 환영	.2 환각, 환상 .22-.25 환각, 환영, 환상, 유령, 귀신	
133 초심리학 및 신비주의의 특정 주제	BF1111-1156 최면술, 암시, 최면, 투영 BF1161-1171 텔레파시 BF1228-1389 강신론, 심령론 BF1404-2055 신비학 BF1444-1486 귀신, 유령 BF1501-1562 악마학, 사탄 BF1562.5-1584 요술 BF1783-1815 선견자, 선지자, 예언	.254-.255 초자연적 존재, 바다귀신 .3 예언, 예측, 신탁 .322 투시력 .4 요술, 마법, 악마학 .44 보호와 도움의 수단, 퇴마, 부적 .6 텔레파시, 투시, 청중 .7 강신술 .72 객관적 또는 물리적 현상 .722-.723 염력, 실현 .73 텔레마취, 가수상태 .74 영적 치유 .8 사취, 사기	
1. 유령			
2. 특정 사물의 초심리학적 및 신비로운 측면			
3. 점술			
4. 악마학과 요술			
5. 점성법(술)			
6. 수상			
8. 심령 현상			
9. 강신론, 심령론			
135 꿈과 신비학			
3. 꿈			
4. 연금술사, 신비주의, 히브리 신비철학			
137 예언, 예지			
138 관상학			
139 골상학			

은 KDC 제6판의 187.3에, 138의 관상학은 KDC 제6판의 188.1에, 139의 골상학은 KDC 제6판의 188.16에 분류가 되어있다.

이를 상호 비교해보면 KDC 제6판의 187.1의 마술, 주술, 187.2의 정신감응술, 187.5의 단, 188.4, 188.5, 188.6에 해당하는 풍수지리나 음양오행에 관련된 주제는 DDC에 없는 주제이다. 이는 주로 동양에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DDC 제23판의 133.8의 심

령현상, 135의 주제에 해당하는 해몽에 관련된 주제는 KDC 제6판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

NDC 신정 10판의 경우 KDC와 분류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147.1의 주술, 환술은 KDC 제6판의 187.1과, 147.2의 정신감응술은 KDC 제6판의 187.2과 147.4 예지, 예언, 투시, 투여는 KDC 제6판의 187.3과, 147.6의 요괴, 유령은 KDC 제6판의 187.41과 동일하다. 반면 NDC에서의 147.3의 악령, 마귀, 147.5의 심령사진,

영사, 147.7 심령술, 147.8 영능자, 초능력자는 KDC에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LCC는 KDC에 비해 더 세부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DC에서는 동일한 세목에 두었던 초심리학과 심령연구를 LCC에서는 초심리학의 하위 항목에 심령연구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UDC는 문헌분류 체계 중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전개되어 있지만 환각, 유령, 예언, 예측 상위 항목들의 요소들은 KDC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KDC의 187과 188의 항목들은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전개하고 있다.

KDC 제6판에서는 187에 분류 시 '심령연구는 마술, 주술(197.1), 정신감응술(187.2), 예언, 천리안, 예지, 투청, 초능력(187.3), 귀신론(187.4), 단(187.5) 등을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DC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초심리학의 분류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제를 심리학에 포함하는 것은 한편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초심리학의 주제로서 심리학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심리학과 초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면 심리학은 인간과 동물의 행동 및 그 행동에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이은경 2008, 5). 또한 심령과학은 자연발생적인 경험, 또는 그 현상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인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현상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장영창 1993, 337; 유명복 2013). 즉, 자연법칙이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고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분야를 말한다.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리학과 초심리학은 서로 다른 학문이기 때문에 초심리학을 심리학의 하위항목에 분류하기보다는 DDC처럼 따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3.2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분류전개의 변천

KDC 제6판은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주제를 187에서 전개하고 있다. 초판부터 제6판까지의 변천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분야의 KDC 초판과 KDC 제6판의 개정사항

분류기호	KDC 초판	KDC 제6판
187	심령연구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1	마술, 주술	마술, 주술
.2	정신감응술	정신감응술
.3	예언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
.4	유령, 요괴	귀신론
.41	-	유령, 요괴, 환영
.42	-	무당, 강신술
.5	-	단(丹)

초판에서 제6판의 변화를 살펴보면 187 심령 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은 초판에서 심령 연구였다가 제2판에서 비학(秘學)이 추가되어 제3판까지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으로 변경되었다. 제4판에서 초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어 현재 쓰이고 있는 제6판까지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187.1 마술, 주술과 187.2 정신감응술은 초판부터 제6판까지 변화가 없다. 이는 NDC의 147.1 주술, 환술과 147.2 정신감응술과 분류전개가 유사하다.

187.3의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은 초판에서 항목에 '예언'만 있었다. 제2판에서 천리안(투시), 투청이 추가되어 예언, 천리안(투시), 투청으로 제3판까지 전개되었다가, 제4판부터 용어가 추가되어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으로 제6판까지 유지되고 있다.

187.4 귀신론은 초판에서 제2판까지 유령, 요괴였다. 제3판부터 귀신론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제6판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제3판부터는 187.4 요목 밑에 세목이 신설되었다. 187.41 유령, 요괴, 환영은 제2판까지 187.4 유령, 요괴로 분류

된 항목이 제3판에서 유령, 요괴로 신설된 항목으로, 제4판부터 환영이 추가되어 제6판까지 유령, 요괴, 환영으로 분류되고 있다. 187.42 무당, 강신술은 제4판부터 신설되어 제6판까지 변화 없는 항목이다.

187.5 단(丹), 또한, 제4판에서 신설되어 제6판까지 변화된 것이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표 3>과 같다.

가장 큰 변화는 187.4의 용어 변경과 세목 추가이다. 하지만 그것도 제4판으로 개정된 후 변화 없이 현재 제6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외에 다른 세목에서도 용어의 변경이나 신설, 이동, 삭제 등의 큰 변화가 없는 것은 학문의 발달, 환경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3.3 KDC 제6판 주기 분석

KDC 187의 주기 분석에 앞서 이에 대응되는 DDC 130의 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참조).

해당 주기의 핵심은 초심리학 현상과 신비학 현상과 종교적인 점이 혼동될 점을 방지하고자

<표 3>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분야의 변경사항

분류기호	KDC 제6판	변경사항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용어 변경
.1	마술, 주술	-
.2	정신감응술	-
.3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	용어 추가
.4	귀신론	용어 변경
.41	유령, 요괴, 환영	신설 및 용어추가
.42	무당, 강신술	신설
.5	단(丹)	신설

〈표 4〉 DDC 130 주기

Use 130 for parapsychological and occult phenomena if they are not presented as religious, or if there is doubt as to whether they have been so presented. Use 200 for works about parapsychological or occult phenomena if the author describes them as religious, or the believers and practitioners consider them to be religious. If in doubt, prefer 130. Use 130 for knowledge reputedly derived from secret and ancient religious texts but not applied for religious purposes: however, use 200 for editions of the texts, even if annotated from an occultist viewpoint, e.g., discussion of occult traditions derived from the Zohar 135.47, but the text of the Zohar 296.162.

함으로써 ‘초심리적 현상과 신비적 현상이 종교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그렇게 제시되었는지 않았다면 130으로 분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DDC 2011).

반면 KDC의 경우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이 마술, 주술(187.1), 정신감응술(187.2), 예언, 천리안, 예시, 투청, 초능력(187.3), 귀신론(187.4), 단(丹, 기(氣))(187.5)과 같은 상이한 주제를 포함함으로써 인해 생기는 분류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물론 KDC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에 주기에서도 ‘이러한 주제를 심리학에 포함하는 것은 한편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초심리학의 주제로서 심리학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187의 주기에서 민속적 미신은 388.2에, 종교와 미신은 210에 분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KDC 2013). 이를 살펴보면 마치 분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용어로 인해 분류의 혼란스러움이 존재한다. 이에 187.4의 귀신론과 187.5의 단(丹)이 해당한다. 187.4의 귀신론은 사전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이고, 쓰인다고 해도 특정 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에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 187.5의 단(丹)은 더욱 불분명하다. 단(丹)이 단학(丹學)을 의미한다면, 단학의 사전적 의미인 ‘도교의 수련법

며 체내의 기(氣)의 흐름을 자연의 순환법칙에 일치시킴으로서 건강을 도모하고 생명의 참모습에 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련법 또는 그 학문’(두산백과 1998)에 해당되는 자료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분류된 자료를 살펴보면, 동양철학, 건강 증진, 심령 현상, 민간요법 등의 자료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이는 단(丹), 단학(丹學)에 대한 용어정의 및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류혼란을 야기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 구분하고 구체적 사례를 주기에 적용하는 보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4. KDC 제6판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유별 특성 분석

4.1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분야의 유별 분석

다음 표들은 국가종합자료목록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87에 분류된 자료들을 조사한 내용이다. 187의 각 하위 세목에 분류된 총 2,829건의 단행본 중, 각 세목에 분류된 자료들이 다른 도서관에서도 해당 분류기호에 분류가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만약 특정자료가 187

하위분류 외에도 여러 다른 분류기호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는 분류에 있어 혼란스러움이 있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조사 방법은 현장에서의 ‘오분류’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힌다.

이를 위해 각 하위 세목 내의 자료를 소장한 기관과 분류기호를 먼저 조사한 후 해당 자료를 다르게 분류한 기관 및 해당 자료의 분류기호를 조사하였다. 또한, 해당 주제의 DDC 분류를 조사하여 DDC 분류와의 연관성,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87에 분류된 자료 2,829건 중 1,599건이 각 세목하위에 분류가 되었고, 1,230건은 각 세목하위 이외에 187 하위로 분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분화할 수 있는 세목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7 하위에 분류가 된 것은 각 세목에 대한 기준 및 명확한 주기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표 5〉 참조).

4.2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분야 분류항목 분석

각 하위 항목의 용어와 주기에 있어서 혼란

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분류가 다르게 된 자료들을 통해 실제 분류에 있어서의 혼동을 확인하였다. 187 각 하위 항목에 분류된 자료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장기관이 많은 자료와 출판년도가 최신인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4.2.1 187.1 마술, 주술

187.1 마술, 주술의 일부 자료들을 선정하여 분석해 본 결과 분류가 각기 다르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표 6〉 참조). 예를 들어 48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마법의 역사’의 경우 31개의 기관은 187.1에 분류하였지만, 17개 기관은 ‘중세 역사’로, 92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각몽, 또 다른 현실의 문’은 무려 49개의 기관이 181.383 ‘꿈, 수면, 잠꼬대’로 분류를 하고 있다. 비록 일부 사례이며 관점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나 상세한 주기를 통해 분류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7.1 및 주기에 나타난 연관 주제들의 주기는 다음과 같다. 187.1(마술, 주술)의 경우 ‘비교종교에 있어서의 주술(呪術)’은 211.17에, 초혼(招魂)은 217.2에 분류하라’, 211.17(주물)의

〈표 5〉 187에 분류된 자료수

분류기호	분류명	자료수(건)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	1,230
187.1	마술, 주술	161
187.2	정신감응술	180
187.3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	558
187.4	귀신론	213
187.41	유령, 요괴, 환영	45
187.42	무당, 강신술	38
187.5	단(丹)	404
	총합	2,829

〈표 6〉 187.1 분류 자료

NO	장서명	소장 기관	KDC 분류기호	분류명	소장 기관	DDC 분류기호	분류명
1	종교와 마술, 그리고 쇠퇴	69	080	일반전집	1	133.4	악마학과 요술
			082	2인 이상의 일반 전집	1		
			211.17	주물, 주술	1		
			924	역사(영국, 아일랜드)	2		
2	헤르메스학입문	69	188.8	점성법(술)	1	135.42	꿈과 신비
			802	문장작법, 수사학	1		
3	진짜부적 가짜부적	34	187.42	무당, 강신술	2	133.4	악마학과 요술
			188.7	점술 (태점, 역점, 귀점, 복점)	4		
4	(당신의 운명을 확 바꿔주는) 행운의 부적	11	-			133.4	악마학과 요술
5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마법의 백과사전	41	030	백과사전	4	133	심리학 및 신비주의
6	나의 비밀주문	17	182.2	양성심리	1	-	-
			183.2	아동심리	2		
			691	오락	2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1		
7	마법의 역사	48	920.3	중세 역사	17	133.4	악마학과 요술
						133.09	초자연현상
8	영똥한 과학사	30	409	과학사	1	133.4	악마학과 요술
9	X세대 주술과일	13	187.42	무당, 강신술	4	188.15	스토아 철학
			188.2	수상(手相)	2		
			188.5	음양오행, 둔감, 역술	4		
			188.7	점술 (태점, 역점, 귀점, 복점)	1		
			211.17	주술(呪術)	1		
10	자각몽, 또다른 현실의 문	92	181.383	꿈, 수면, 잠꼬대	49	135.3	꿈과 신비
						154.63	수면현상

주기는 '211.1 숭배(예배)의 대상의 하위 세목으로 주술(呪術)을 포함한 주물(呪物)을 분류' 하고, 심령연구에 있어서 마술, 주술은 187.1에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17.2는 '217 예배형식, 의식, 의례의 하위 세목으로 초혼(招魂)을 분류' 하게 되어있으며, '영감에 의한 마술 등을 포함' 하고, 심령연구에 있어서의 마술, 주술은 187.1로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마술, 주술'의 경우 비교종교(比較宗教) 관점이면 211.17, 초혼(招魂) 관점이라면 217.2에 해당된다. 반면 이들 주제에서 심령연구를 다루

고 있는 마술, 주술일 경우 187.1로 분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187.1 하위에 분류된 자료 중 대체 '심령연구'를 다루고 있는 마술, 주술에 해당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마법의 백과사전'과 같은 경우 총 41개 도서관 중 총류로 분류한 4곳과 211.16 악마 및 악령 숭배에 한 곳, 231.2 성자, 천사, 악마로 분류한 한 곳 제외하고 모두 37개의 도서관이 187.1로 분류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 마치 해당 자료를 187.1로 분류하는 데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실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187.1에 분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로 '심령연구'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그 하위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미술', '주술'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술, 주술에 대한 용어 또한 불분명하다. 이 경우 비록 상관색인에는 미술이 187.1과 689.3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예술 분야의 미술은 경우 187.1의 주기에 689.3으로 분류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x세대 주술파일' 자료를 살펴보면 13곳의 도서관 중 187.1은 한 곳, 187.42 4곳, 188 2곳, 188.5 4곳, 188.7 1곳, 211.17 1곳으로 나타난다. 해당 도서의 주제어는 주술, 부적, 꿈 풀이, 역학이며, 이는 187.1의 주기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4.2.2 187.2 정신감응술

187.2 정신감응술에 분류된 자료들일 일부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187.2 분류 자료

NO	장서명	소장 기관	KDC 분류기호	분류명	소장 기관	DDC 분류기호	분류명
1	상대를 읽으면 천하를 얻는다	10		-		133.82	텔레파시
2	속셈을 간파하는 투시술	11	331.18	인간관계	1	133.8	심령현상
3	(운명재창조의) 비밀	13	188	상범, 운명판단	2	133.8	심령현상
						204.4	종교 (특별 주제)
4	(그림과 함께 하는) 명상 How to	58	181.3	인식 및 사고	1		-
			199.1	인생훈	1		
			21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수도생활	1		
			512.57	민간요법	16		
5	상대방 마음을 먼저 읽어라	24	194.2	사고, 처세술	1	158	응용심리학
			199.1	인생훈	1	174	경제 및 직업 윤리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1		
			814.6	수필	2		
6	초능력	10		-		133.8	심령현상
7	(회사에서 통하는) 독심술	88	194.2	사고, 처세술	1	650.1	개인 비즈니스 성공
			325.3	인사관리	5		
8	96가지 독심술 마음을 읽는 법	33	183	발달심리학	1		-
			325.3	인사관리	3		
			331.18	인간관계	18		
9	독심술의 손자방법	25	182.1	개성심리	1	158.2	응용심리학
			185.51	정신분석이론	3		
			194.2	사고, 처세술	1		
			199.1	인생훈	1		
10	독심술 콘서트	35	194.2	사고, 처세술	1	153.6	대화, 소통
			331.18	인간관계	10	158.2	응용심리학
						179.9	기타 윤리적 규범

정신감응(精神感應)은 '표정·동작·언어 등의 감각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한 사람의 정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정신으로 온갖 종류의 인상(印象)이 서로 전달되는 일종의 심령현상(心靈現象)'(교육학용어사전 1995)로 정의된다. 흔히 '텔레파시'란 말로 불리기도 한다. 문제는 187.2의 주기이다. 주기에는 '이심전심(以心傳心), 독심술을 포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사성어이다. 다만 이러한 용어는 주관적 해석이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독심술은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하는 원격감응(遠隔感應: telepathy)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두 용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187.2에 분류된 자료는 다른 주제에도 분류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상당한 자료들이 '인간관계'나 '사고' 주제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정작 정신감응(텔레파시)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를 읽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하지만 부제목이 '대인관계를 위한 독심술'인 것을 보았을 때 부제의 '독심술'로 인해 187.2에 분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관계' 혹은 '처세술'에 가깝다. 즉, 331.18이나 194.2에 분류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속셈을 간파하는 투시술', '96가지 독심술 마음을 읽는 법', '독심술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목차와 키워드가 인간관계에 가까우므로 주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 독심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기는 문제이다. 즉, 187.2에 해당하는 정신감응,

이심전심, 독심술에 대한 주제에 대한 사례 및 명확한 주기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4.2.3 187.3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

187.3 예언, 천리안(투시), 예지, 투청, 초능력에 분류된 자료들을 일부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187.3의 주기를 살펴보면 '종교에 있어서의 예언은 해당종교 아래에 분류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비교종교에 있어서의 예언은 217.1, 하나님의 예언은 231.17). 217.1의 경우 해당종교에 해당되지 않는 심령연구의 점술 및 예언은 187.3으로, 231.17의 경우에도 기독교에 해당하지 않는 점술(예배형식)에 있어서의 예언은 217.1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상관색인에도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즉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주제마다 그 주기가 비교적 상세하므로 분류 시 혼란이 덜 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천리안(투시)은 '천리 밖의 것을 볼 수 있는 안력'(두산백과 1998)이라는 뜻으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뛰어난 관찰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예지는 '미래의 일을 지각하는 초감각적 지각이나 능력'(두산백과 1998)을 뜻한다. 초능력은 '현대 과학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염력, 예지, 투시 등을 모두 통틀어 이르는 말'(두산백과 1998)이다. 투청의 경우 유독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정의하기 매우 까다로운 용어이다.

187.3은 전체적으로 분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청을 제외하고는 용어의 정의 및 용례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8〉 187.3 분류 자료

NO	장서명	소장 기관	KDC 분류기호	분류명	소장 기관	DDC 분류기호	분류명
1	(천년수 할아버지의) 명상과 초능력 이야기	26		-		133.3	신화, 예술
2	(인간의 마지막 진화) 호모 노에티쿠스	51	204.15	법식론	19	291.2	교리
			211	교리	1	299.9	기타 종교
			300	사회과학	1	301.24	사회학 및 인류학
3	현대를 살고 있는 대 예언자	23	-			133.8	심령 현상
						133.9	강신론, 심령론
4	과거로 통하는 마음	20	185.5	정신분석학	1	133	심리학 및 신비주의
						133.8	심령현상
						001.94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식
5	투시	9	-			133.8	심령현상
6	나는 잠자는 예언자	37	-			133.8	심령현상
7	(우리 민족의 삶과 역사) 정감록	17	911	한국사	4	133.3	신화 예술
						951.11	한국사
8	(이세상이 행복해지는) 저세상 이야기	55	211.3	인간영혼론	1	133.9	강신론, 심령론
9	초능력을 잡아라	9	675.1	기약합주 (이론 및 기법)	1	-	
			813.8	한국 동화	4		
10	최후의 초엽력	15	-			133.8	심령현상

4.2.4 187.4 귀신론

187.4 귀신론에 분류된 자료들을 일부 선정하여 분석한 사례는 〈표 9〉와 같다. 먼저 분류명을 살펴보면, 귀신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종교에서 쓰이는 단어로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단어이다. 게다가 이 용어는 187.41 유령, 요괴, 환영과 187.42 무당, 강신술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분류된 자료의 특징을 보면 문제점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분류된 자료들의 목차나 본문을 살펴보면 ‘신내림의 진실’은 신내림, 내림굿, 무당, ‘빙의가 몰려온다’는 빙의, 귀신, ‘유령의 자연사’는 유령, 악마, 귀신, ‘(한국정통) 무속 신내림’은 무당, 신내림, 무속인, ‘내림굿의 배신: diy 법사되기’는 무속, 내림굿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무당, 무속, 내림굿, 빙의, 악마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해당 분류기호는 귀신론이라는 용어 보다는 무당, 무속, 내림굿, 빙의와 같은 주제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바뀌어야 함이 마땅하고, 일부 용어들은 관련 주제에서 자주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상관색인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유령, 요괴는 187.4는 귀신론의 하위 세목인 187.41에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기를 살펴보면 187.41은 유령, 요괴, 환영은 고스트, 도깨비, 몽달귀신까지 분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속에서의 유령은 388.2에, 비교종교에 있어서의 혼신은 211.16에, 환각, 환상은 184.5에 분류하도록 나타나 있다. 하지만 요괴에 대

〈표 9〉 187.4 분류 자료

NO	장서명	소장 기관	KDC 분류기호	분류명	소장 기관	DDC 분류기호	분류명
1	신내림의 진실	9		-		133.4	악마학과 요술
2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36	388.2	민간신앙	10		-
3	빙의가 몰려온다	4		-		133.8	심령현상
4	세계의 요괴도감	23	031	한국의 백과사전	2	398	민속학
			388	민속학	9		
			818	르포르타주 및 기타	3		
5	유령의 자연사	139		-		133.1	유령
6	귀신과 트라우마: 한국 고전 서사에 나타난 귀신 탐색	21	080	일반전집, 총서	1	398.4	민속학
			082	2인 이상의 일반전집, 총서	1		
			388.2	민간신앙	7		
7	어느 무당과의 대화	3	388.2	민간신앙	2		-
8	(한국정통) 무속 신내림	3		-		398.4	민속학
9	내림곳의 배신: diy 법사되기	18		-		133.4	악마학과 요술
10	빙의가 당신을 공격한다	112	188.5	음양오행, 둔갑, 역술	3	133.8	심령현상

한 자료가 해당 분류기호에 분류되었지만 정작 '민담과 신앙을 통해 본 도깨비의 세계', '세계의 요괴도감', '귀신과 트라우마: 한국 고전 서사에 나타난 귀신 탐색', '어느 무당과의 대화'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료를 민속학으로 분류한 도서관들이 많았다. 이는 귀신론의 용어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주기에 분류지시가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5 187.5 단(丹)

187.5 단(丹)에 분류된 일부 자료들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187.5 단(丹)은 기(氣)를 포함한다고 주기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분류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료들이 기(氣), 기학, 단전호흡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키워

드들은 '단전호흡과 기의 세계'는 단전호흡과 수련, '득도(得道)하는 수련법'은 득도, 단전호흡, '丹 위력'은 축지법, 둔갑법, 비행, 투시, 체험수기, '(6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 득도혁명'은 단전호흡, '기의 구조와 위력의 발견'은 기(氣), '(김종업 박사가 들려주는) 도란도란 道 이야기'는 기(氣), 단전호흡, '21세기 명상법의 심벌리즘'은 명상법, 수행(종교), '뼈 건강을 위한 골기공법' 뼈, 기공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주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기(氣)'와 관련한 주제로써 특별한 문제 없이 분류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류된 자료들이 실제로는 임상의학, 종교에도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丹)'이 어떤 주제를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한 주기가 없기 때문이다. '단(丹)'의 사전적 정의는 실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단(丹)'이 도교(道敎)를 의미하는 것인

〈표 10〉 187.5 분류 자료

NO	장서명	소장 기관	KDC 분류기호	분류명	소장 기관	DDC 분류기호	분류명
1	기학의 모험	168	-	-	-	181	동양 철학
2	단전호흡과 기의 세계	71	511.12	호흡	12	613	건강 증진
			512.57	임상의학(민간 요법)	53		
3	득도(得道)하는 수련	25	512.57	임상의학(민간 요법)	11	133.8	심령현상
4	丹 위력법	5	150	동양철학	2	-	-
5	丹	3	-	-	-	-	-
6	(6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 득도혁명	29	21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수도생활	2	-	-
			224.3	신앙록, 명상록	1		
			512.5	임상의학 (기타 요법)	1		
			512.57	임상의학 (민간 요법)	1		
7	기의 구조와 위락의 발견	15	512.57	임상의학 (민간 요법)	1	613.7	개인 건강
			519.25	한의임상학 (기타 요법)	1	615.8	약리학 및 치료
8	(김중업 박사가 들려주는) 도란도란 道 이야기	25	151.56	한국철학, 사상 (기타 유학파 및 사상)	1	131	행복,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초심리학 및 초자연적 방법
			199.1	인생훈	1		
			291.1	기타 제종교(한국)	18		
9	21세기 명상법의 심벌리즘	38	214	종교신앙, 신앙록, 신앙생활, 수도생활	12	294.3	인도기원의 종교
						299.51	그 외의 종교
10	뼈 건강을 위한 골 기공법	43	510	의학	1	613.7	개인 건강
			511.172	골생리학	1		
			511.472	골학	1		
			512.57	균류	24		
			519.25	한의임상학 (기타 요법)	2		

지, 만약 그렇다면 이 단(丹)'이 선약(仙藥)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단학(丹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종교나, 수련, 한의학 등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분류된 자료들이 기(氣), 기학, 단전호흡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때 187.5의 분류명을 기(氣), 기학, 단전호흡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

하고, 자료의 관점이 임상의학, 종교 등일 경우 해당 주제로 분류하는 용례가 필요하다.

5. 결 론

심리학과 초심리학의 정의를 살펴보면 분명

이들 학문은 연관성이 적은 학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DC 제6판 해설서에서도 이미 '초심리학 주제를 심리학에 포함하는 것은 한편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심리학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KDC 2013).'고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타 분류표와 비교해봤을 때 KDC 제6판의 187 분류진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강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187의 세목에 분류된 자료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도서관에서 해당 자료들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목에서 일관성 있게 분류되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용어(분류명과 주기에서 사용된 용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확한 주기가 기술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자료의 분류 시 혼란이 있었기 때문임을 가정해볼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87.1의 경우 초심리학적인 주술, 미술과 비교종교(比較宗教)에 있어서의 주술, 마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주기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187.2의 이심전심, 독심술 등의 용어는 그 의미가 분야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용례를 주기에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다. 187.2의 정신감응술은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주기로 명시해줘야 한다. 독심술은 초심리학 분야에서 쓰이는 주제만 분류되

어야 함을 명시하여 <표 7>의 다르게 분류된 사례처럼 인관관계나 사고 주제로 분류될 자료가 잘못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187.3의 예언의 경우 초심리학 측면과 비교종교(比較宗教)적 측면, 하나님의 예언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시하도록 한다. 투청과 같은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용어는 삭제하도록 한다. 초능력에는 염력, 예지, 투시 등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주기에 명시하도록 한다.

넷째, 187.4에서는 비록 주기에서 유사 주제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 주제 간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료를 분류한다고 가정해보면 사서의 경험과 역량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구체적인 주기 마련이 필요하다. 187.4의 귀신론은 특정 종교에서 쓰는 용어이며,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귀신론'이라는 용어를 하위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187.5의 단(丹) 또한 '붉다, 성심, 신약, 단사'등 사전적 정의가 다양하고 어떠한 주제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분류된 자료들이 대부분 기(氣), 기학, 단전호흡을 다루고 있는 만큼 187.5의 용어를 기(氣), 기학, 단전호흡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자료의 관점이 임상의학, 종교 등일 경우 해당 주제로 분류하는 용례를 주기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한 개선방안의 일부 사례는 <표 11>과 같다.

이 연구는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

〈표 11〉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개선방안 요약

분류기호	기존	변경(안)	비고
187.1	마술, 주술 비교종교에 있어서의 주술 → 211.17: 초혼 → 217.2	마술, 주술 여러 종교의 특성 및 본질 등을 연구하는 비교종교는 211.17에 분류한다.	주기 추가
187.2	정신감응술 이신전심, 독심술 등을 포함한다.	텔레파시 의사소통을 감각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독심술을 포함한다. 인간관계 → 331.18, 사교, 처세술 → 194.2	용어 변경, 주기 추가
187.3	예언, 천리안(투시), 투청, 초능력 종교에 있어서의 예언은 해당종교 아래에 분류한다. 예: 비교종교에 있어서의 예언 217.1: 하나님의 예언 231.17	예언, 초능력 염력, 예지, 투시 등의 능력을 포함한다. 종교에 있어서의 예언은 해당종교 아래에 분류한다.	용어 변경, 주기 추가
187.4	귀신론 유령, 요괴는 187.41에 분류한다.	귀신 유령, 요괴는 187.41에, 무당, 신내림은 187.42에 분류한다.	용어 변경, 주기 추가
187.5	단(丹) 기(氣)를 포함한다.	단전호흡 기(氣), 기학을 포함한다.	용어 변경, 주기 추가

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심령연구 및 비학, 초심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분류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분류 체계의 미흡함과 KDC의 변천 과정을 통해 학문의 발달, 환경의 변화가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둘째, 187 심령연구 및 비학(秘學), 초심리학의 각 하위 항목에 분류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187.1은 주기의 부족으로 인한 다른 분류 기호와의 혼동이, 187.2는 명확하지 않은 용어와 주기로 인한 다른 용어와의 혼동이, 187.3

은 명확하지 않은 주기로 인한 비교종교와의 혼동 및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인한 혼동이, 187.4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인한 혼동이, 187.5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로 인한 혼동이 있었다. 이를 통해 분류기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분류의 혼동이 있음을 파악했다.

셋째, 각 분류기호의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187의 모든 하위 항목에 주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187.1, 187.2, 187.3, 187.4에 있어서 용어의 변경을 제안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KDC 제6판 개정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송이, 정연경. 2014. KDC 제6판 건축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1(3): 7-27.
- 김수정. 2013. KDC 제 6판 디자인학 분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53-72.
- 김정현. 2014.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공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103-123.
- 김정현. 2017.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사회복지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63-81.
- 박희준. 1999. 심령(心靈) 연구의 역사와 현황. 『한국정신과학학회지』, 3(2): 43-58.
- 여지숙, 이준만, 오동근. 2008. KDC 제4판 화학공학(570)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249-266.
- 유명복. 2013. 초심리학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교육정보』, 39: 347-374.
- 이은경. 2008. 한국십진분류법 심리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희진, 김정현.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 24(4): 301-317.
- 장영창. 1993. 심령과학의 연구방법과 이론. 『교수아카데미총서』, 6: 357-363.
- 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KDC 제6판 약학 분야의 분류항목 전개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81-299.
- 한국도서관협회. 1964. 『한국십진분류법』. 제1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66. 『한국십진분류법』. 제2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80. 『한국십진분류법』. 제3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1996. 『한국십진분류법』.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日本圖書館協. 2014. 『日本十進分類法』. 東京: 日本圖書館協.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5. *Universal Demical Classification*. London: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 Dewey, Melvil.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N.Y: Forest Press.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ystem. *Super LCC: Gale'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ombined with Additions and Changes, Class H: Social Sciences. Detroit: Gale Research.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Yeong-Chang. 1993. "The Science Research Methods and Theories of Parapsychology." *Prof. Academic Series*, 6: 357-363.
- Chung, Ok-Kyung, Jang-Ik Lee, and Jung-Hee Choi.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armacy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81-299.
- Kim, Jeong-Hyen. 2014. "The Improvements of the Tourism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103-123.
- Kim, Jeong-Hyen. 2017. "The Improvements of the Social Welfare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63-81.
- Kim, Song-ie and Yeon-Kyoung Chu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Fields in the 6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7-27.
- Kim, Soo-Jung.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Desig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53-72.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4.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1st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66.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nd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80.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3rd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1996.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4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5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6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Eun-Kyoung.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Psychology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KDC*.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Lee, Hee-Jin and Jeong-Hyen Kim.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01-317.
- Park, Hee-Jun. 1999. "The History and Current History of Parapsych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3(2): 43-58.
- Yeo, Ji-Suk, Joon-Man Lee, and Dong-Geun Oh. 2008. "The Improvements of the Subject Chemical Engineering in the 4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249-266.
- Yoo, Myung B. 2013. "A Christian Approach to Parapsychology."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9: 347-374.